

캐나다 이누잇(Inuit) 전통공예 디자인에 나타난 종교의식 연구

A Study on the Religious Consciousness of Canadian Inuit Traditional Crafts Design

백승정

서일대학 산업디자인학과

Paik, Seung-Jung

Dept. of Industrial Design, Seoil College

· Key words: Canadian Inuit, Traditional Crafts, Religious Consciousness

1. 서론

캐나다 이누잇은 북아메리카의 에스키모라 불리기도 하며 캐나다의 북극(arctic)과 아북극(subarctic)지역, 노스웨스트 테리토리(Northwest Territories), 누나뫓(Nunavut)등에 거주하는 원주민이다. 이누잇은 인류학적이거나 언어 계통적으로 볼 때 한국과 같은 몽골 계통이며 예술적으로도 시베리아 북방계통 스키타이인의 동물예술과 중국고대의 청동예술과도 관계가 있는¹⁾ 아시아적 요소를 지닌 예술을 발전시켜 왔으므로 두 민족간 전통공예디자인의 종교의식에 있어 유사성이 있으리라 보며 이를 분석하여 상호 유사성과 차이점을 찾는 데에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연구범위는 지리적으로는 캐나다의 북극과 아북극지역, 노스웨스트 테리토리, 누나뫓 그리고 북서해안 지역에서는 하이다(Haida)족과 틀린깃(Tlingit)족이 거주하는 지역을 위주로 하며 시기적으로는 이누잇의 기원으로부터 역사기까지에 나타난 전통공예를 대상으로 한다.

연구방법은 이누잇의 이론적 배경에 대해서는 문헌적 고찰을 하였고 유물이나 소장품들은 본 연구자가 2년동안 캐나다에 거주하면서 박물관, 미술관, 각 대학의 연구자료실을 현지 답사하여 예술품을 분석하였으며 이누잇의 주요 거주지들을 방문하여 이누잇 예술가들과 실제토론을 하였다.

2. 이누잇 전통공예 디자인에 나타난 종교의식

2-1. 이누잇 샤머니즘과 샤먼의 역할

이누잇의 샤머니즘은 루이스(Lewis)에 의해 사회학적 구조보다는 인류학적 관심으로 크게 두 가지 형태로 구별 발전되었으며, 젤너(Gellner)는 그것을 생각이나 믿음의 체계라 하여 현실의 사회적 구성과 사회내에서의 역할을 구분하였다.

이누잇 사회에서는 조화롭지 못한 영혼들이 균형을 깨서 분란을 일으킨다고 믿었으며 상처받은 영혼으로부터 이러한 낫을 내보내면 안정을 찾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리하여 영혼이 정상으로 돌아오면 집단내의 자연스러운 균형과 감정적, 심리적 조화의 회복으로 집단의 힘을 육체적 생존 과정에 집중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²⁾ 그러므로 이누잇 샤먼들은 악의 영혼과 악의적인 세력, 그리고 신과 초자연적 존재를 조종하는 능력과 대지를 지배하는 세력과의 의사 소통으로 주술적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한 책임과 힘을 필요로 했다. 또한 지

성과 능력, 그리고 인격을 갖춘 샤먼들은 인정받은 지도자가 되어 사람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통제하기까지 한 것이다. 이들은 뛰어난 속세의 자질과 주술적인 재능을 가진 사람들로서 탐험가와 민족학자, 선교사들도 샤먼들을 우수한 개인 능력을 가진 사람들로 평가했다.

그러므로 일반적인 영혼의 묘사가 나타내듯 샤먼들이 부리는 영혼은 가장 이상하고 독특하고 다양한 존재로 예술의 형태에 반영되었고 영혼의 다양성은 예술작품에 대부분 표현되어 있다.³⁾ 또한 젊은 샤먼에 대한 교사의 역할과 부적이나 가면을 만들고 다른 종교적인 물건을 조각하며 특별한 주술적 예술을 증명하고 실행하는 것도 샤먼의 의무였다.⁴⁾ 즉 샤먼의 특별한 상상력의 표현은 힘의 일반적인 비유이며 북서 해안에서 발견된 여러 개의 岩面 예술 유적지의 지배적인 이미지로 고기잡이와 연관된 주술적 의식의 표현이었다. 이러한 샤먼과 영혼과의 상관 관계는 영혼 조력자의 이미지와 샤먼의 재능이 단 일체처럼 합쳐져 이누잇 예술작품에 다양하게 나타나 있다.

2-2. 이누잇의 종교의례

이누잇에 의하여 지켜진 가면의식, 부적, 금기, 제례의식 그리고 샤먼의 힘은 그들의 영혼세계를 구성하였으며 이러한 종교적 믿음은 예술품들의 제작에 동기를 부여하여 여러 형태의 종교의식으로 나타나 이누잇 예술의 주제와 형태 등 예술의 전신을 지배하였다.

이누잇의 가면은 소유주에 대한 권리뿐만 아니라 부족의 구분과 신화를 구체화하는 기록이며 의식 생활의 중요한 부분으로서 가면의식과 무용극으로 이를 사실화했다. 이러한 무용극들은 부족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특히 크와크와카와크(Kwakwaka'wakw)족의 극적인 공연과 하마차라는 무용극은 유명하다.

또한 가면의식은 주술적인 체험의 표현이며 개인의 내력이나 사건, 예술가의 체험이므로 예술가들과 가면 제작자들은 인물의 표현에 있어서도 외형적 모습뿐만 아니라 내부의 영적인 힘, 즉 내부 이미지의 표현을 특히 중요시하였다.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符籙과 광범위하게 사용된 인형은 모두 얼굴이 있는 갈가미귀 형상으로 조각되었는데 샤먼이 할 수 있는 변환, 동물 영혼과의 대화, 미귀의 고문 같은 마술적 행위를 회화적으로 묘사하는 장면이 담겨 있다.⁵⁾ 특히 符籙의 역할을

1) Carson I. A. Ritchie, *The Eskimo and His Art*, Macmillan of Canada, Toronto, 1974, p.9

2) Kit Miner, *ISSUMATUQ*, Fernwood Publishing, 1992, pp.33-43

3) Carson I. A. Ritchie, 전계서, pp.33-35

4) The Winnipeg Art Gallery, *The Coming and Going of the Shaman, Eskimo Shamanism and Art*, The Winnipeg Art Gallery, 1979, pp.118-126

대표하는 영혼인형인 투필락(Tupilak)은 인간이나 동물의 일부분을 표현한 가장 강력한 조각품 중 하나로 주술의식에 사용되었으며 창이나 카약 등 낚은 사냥 도구로도 다양한 형태의符籙을 만들었다. 그 외에도 이누이트들은 세드나(Sedna)를 위한 축제의식과 이누아(Inua)를 위한 방광의 축제, 죽은자를 위한 축제, 북싸움, 미이라 보존 등 지역마다 제례의식의 형태는 조금씩 다르나 거의 같은 시기에 동일한 축제를 시행하는데 이는 이누이트 문화의 동질성에 대한 중요한 증거이다. 그러므로 이누이트 예술작품속에 나타난 종교의례는 가면들과 상아인형, 符籙 등 다양한 예술품들의 제작에 동기를 부여하며 예술의 주제에 큰 역할을 하였다.

2-3. 이누이트 예술속의 샤머니즘과 한국 예술속의 샤머니즘

이누이트의 무속신앙인 샤머니즘은 동북아시아와 남북아메리카의 연결 고리이며 전통적 이누이트 샤머니즘과 동북아시아의 샤머니즘에는 별 차이가 없다.

캐나다 문명박물관(CMC)에는 이누이트 사민의 파카와 벨트, 부속물과 장식물 등 사민과 관련된 유물이 많다. 그 중에서도 큰북이나 장대, 지팡이, 칼, 거울, 방울 등의 사민의 符籙은 사민이 靈界와 교통할 수 있는 중요한 미술적 매개체의 기능을 가지며 방울은 샤머니즘과의 연관성을 더욱 부각시킨다. 아시아의 민족 가운데는 사민과 그 방울이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종족이 있으며 錫伯族들의 사민은 전통적으로 祭儀式에 방울을 활용하고 방울 달린 神帽을 쓰고 있다.

현재 한국에서 사용하는 전통적인 무구 중에 '철성방울'과 청동기 시대 유물인 방패형 동기, 검파형 동기, 팔주령등 다양한 형태의 많은 의기들도 시베리아 북방문화의 독특한 유형과 북방기원의 방울 문화와 방울이 무구로서 필수적임을 말해주고 있다.⁵⁾ 또한 사민 頭巾에 사용된 순록과 사슴은 마법 운반의 매개자이고 신의 심부름꾼이라고 생각했으며 시슴뿔가지는 재생과 성장의 형태를 의미한다. 그리고 古신라시대에 유행했던 금관은 북아시아, 중앙아시아 종족들의 사민관과도 조형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있으며 古신라 북방적 묘제양식인 '적석목곽분'을 중심으로 그 토속적 조형가치를 찾을 수 있다.⁶⁾ 또한 신라시대의 土偶에서도 성교와 출산장면 등의 솔직 대담한 표현, 단순한 듯 하지만 집약된 상징성으로 그 시대의 생활이나 인간정신의 내면을 조형적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애니미즘, 샤머니즘, 토테미즘의 원시신앙을 잘 반영하고 있다. 조선후기의 장승은 파격적이고 해학적인 민중예술로서 솟대, 神木, 신당 등과 함께 신석기나 청동기 시대부터 있어온 원시 신앙적 조형 예술물로 보는 것이 통설⁷⁾이며 조선시대의 종교적인 민화에서도 샤머니즘이나 조상 숭배 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누이트와 한국의 샤머니즘은 생존과 문화보존의 전통으로서 영혼과 우주와 인간과의 관계를 대상으로 영혼설, 애니미즘, 토테미즘, 금기 등을 낳으며 모든 전통예술의 정신

을 지배한 것이다. 또한 자연의 절대적인 힘이나 야수와의 저항 속에서 이루어지는 미술적인 것에서 비롯되어 생활과 결부되는 주술, 혹은 집단생활에서 우러나는 상징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주술이나 상징은 형상을 통한 자연물의 기호화 내지는 언어화로써 그것은 체계성을 가지고 있었으며 각 시대를 거치면서 이러한 샤머니즘에 근거한 내부의 영적인 이미지들이 생명과 갈등과 힘의 세계로써 모든 전통공예디자인에 주제와 동기를 부여하며 예술의 정신을 지배했던 것이다.

3. 결론

이누이트와 한국의 종교의식은 모두 샤머니즘이라는 원시종교를 주류로 생존과 문화보존의 전통으로서 영혼과 우주와 인간과의 관계를 대상으로 영혼설, 애니미즘, 토테미즘, 금기 등을 낳으며 모든 전통 예술의 정신을 지배하였다. 그러므로 이러한 의식에 바탕을 둔 전통공예 디자인의 종교의식은 결국 샤머니즘의 본질로써 규명될 수 있다. 즉 무의식 속에 잠재된 우주관과 세계관의 상징으로 그들이 표현한 형태와 색채, 문양의 대부분이 북방 아시아 유목 민족 문화권인 시베리아 문화권의 영향 속에서 발전되었다는 것은 이누이트와 한국인의 조형의식에 있어 근본적 동질성을 증명해주는 중요한 결과이다.

그러므로 캐나다의 이누이트와 한국인은 비록 지역적으로는 서로 멀리 떨어져 살아 왔지만 그 문화의 원류가 같으며 원시종교인 샤머니즘을 중심으로 하는 철학과 신앙체계, 영혼을 믿는 개념, 금기, 종교의례 등이 모든 전통공예에 표현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의식은 형태, 기능, 색채, 재료, 문양 등의 모든 조형요소에 상징적 의미로 나타났음을 볼 때 캐나다 이누이트 전통공예 디자인과 한국 전통공예 디자인에 나타난 종교 의식은 근본적으로 동일하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참고문헌

- Berlo, C. Janet & Ruth B. Phillips, *Native North American Art*, Oxford University Press, 1998
- Carson I.A. Ritchie, *The Eskimo and His Art*, Macmillan of Canada, Toronto, 1974
- Kit Miner, *ISSUMATUQ*, Fernwood Publishing, 1992
- Marion Wood, *Sprite Heroes & Hunters*, Peter Bedrick Books, 1992
- The Winnipeg Art Gallery, *The Coming and Going of the Shaman, Eskimo Shamanism and Art*, The Winnipeg Art Gallery, 1979
- 권영필, 「렌투스양식의 미술 -동쪽으로 불어온 실크로드 바람-」, 사계절 출판사, 2002
- 유홍준, 이태호, 「조선후기 장승의 미술사적 규명」, 「한국미술사의 새로운 지평을 찾아서」, 학고재, 1997
- 진홍섭, 「한국의 공예」, 「국보 5권」, 1996

5) Berlo, C. Janet & Ruth B. Phillips, *Native North American Art*, Oxford University Press, 1998, pp.190-191

6) 권영필, 「렌투스양식의 미술(상)」, 사계절 출판사, 2002 pp.253-259

7) 진홍섭, 「한국의 공예」, 「국보 5권」, 1996, p.182

8) 유홍준, 이태호, 「조선후기 장승의 미술사적 규명」, 「한국미술사의 새로운 지평을 찾아서」, 학고재, 1997, p.77